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감사하는 신앙생활, 즐거운 인생살이
- ◎ **감사주일:** 오는 10월 26일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한해 지켜 주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 ◎ **세례식:** 세례받은 성도들 갈보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앙의 지속적인 증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예배 후 기념사진).
- ◎ **전도대회:** 10월 18일(토) 오후에 교회 선교부와 3여선교회 주관으로 시티 Queen St 중심으로 전도대회를 나갑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협력:청년부).
- ◎ **모임:** 오늘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고 년초에 세운 계획 점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성탄선물:** 이번 성탄을 맞아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각 공동체에서는 해당 선교사들을 위한 선물(성탄카드 등)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화요기도회:** 이번 주간 만 쉽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 ◎ **결혼:** 최광암 집사 (김윤숙 집사) 장남 유준군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 2014년 10월 11일 (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Oatlands House "The Deck Room"
42 Bettington Rd, Oatlands(호주 시드니)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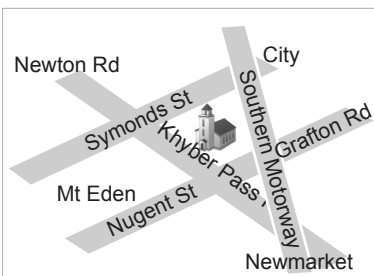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10월 5일 주일 16권 40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병아리부부

“...이로써 두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작년 오늘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신혼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우던 어느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질문이 있었다. ‘비전이 선교인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민을 계획했다.

“이민계획은 확실합니다. 이 계획은 절대 잘못될 수 없습니다. 계획한 길로만 가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유학원에서 정해준 일정에 따라 주변분들의 염려와 격려를 받으며 뉴질랜드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하였다. 입학준비, 집과 교회선택 등 우리가 계획한 뉴질랜드 생활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학교에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은 “남편분은 영어를 추가로 해야합니다.”라는 매니저의 통보에 요리학교를 포기하고 아내는 헬스케어과정이 있는 학교로 나는 여학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우리가 결정한 계획과 선택을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불안함을 겪게 되었고, 그 불안함은 웃음이 가득했던 보금자리에 한숨과 걱정이 찾아들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불만이 가득했고, 가정예배는 중지되었다. 분명 위기였다.

‘비자가 안나오면 어떻게 하지?’, ‘변경한 계획은 잘 한 건가?’에서 야기된 위기가 아니었다. 그 위기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어 내면에 답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위기를 느낀 후 우리의 해결책은 포기였다. 고집,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 자존심, 이기심 등을 포기하며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서로 나누었다. 또한, 이민목적을 회상하며, 계획을 고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신뢰했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벽은 사라졌고, 다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해졌다.

“일어나봐요! 일어나요~.” 아침일찍 나를 깨우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다. 아내의 손에서 임신을 알려주는 보라색 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곧 내 얼굴에도 기쁨이 만연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생명을 주신것이다. 우리는 1년 전부터 생각한 태명을 부르며, 한국의 가족들, 주변 지인분들과 동역자들에게 알리며 기쁨을 나누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믿었다.

그러나, 방학하기 1주일 전부터 아내가 통증을 호소했다. 임신초기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동일한 해결책은 휴식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학생 신분이었기에 철수가 없었다. 통증을 참아가며 방학을 기다렸고, 마침내 방학이 시작되었으나 방학 첫날 아내는 자연유산 하게되었다. 우리는 말이 없어졌고,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졌고, 이전에 있던 불만에 슬픔이 담겨 송곳으로 다가왔다. 이전보다 더 큰 혼란과 어려움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온전히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위기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안에서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참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세 레 식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시편 84:1-4
찬양대
다함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90. 세례
사도신경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최득수 집사
고린도전서10:1-4
나무십자가 찬양대
다 세례를 받고/이태한목사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집례자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임혜자 권사
하박국 1:12-17
선지자의 두번째 질문2/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 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최정인 형제

10월 교회알지

월샷 기도회: 10월 1일(수)
세례식: 10월 5일(주일)
향존직분자 기도회: 10월 25일(토)
추수감사주일: 10월 26일(주일)

10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박병민/이기중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기영 사모
다음 주일: 고성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10월 15일 수요: 원미경 집사
10월 15일 애찬: 김영옥 권사
10월 19일 주일: 박일영 장로
10월 19일 청년부: 조주찬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주인되시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성령님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가 되도록.
2. 한달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안에서 행하므로 능력있는 삶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여러가지 삶의 힘든 현실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성전 이전 계획에 진전이 있도록.

10월 새벽기도회 본문

10일: 전도서 6:1-12 자족하며 누리지 못함이 불행입니다
17일: 전도서 10:1-11 세상의 모순을 넘어설 지혜를 구하십시오
24일: 요한계시록 2:1-11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기는 교회
31일: 요한계시록 5:1-14 영원히 찬양받으실 죽임당하신 어린양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여러 선교사들의 연락처를 실습니다. 각 공동체별로 선교사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체	선교사	사역지 및 사역	이메일과 연락처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동탑성 탄빈군 지역 기초보건, 주택보급, 구제, 교육사역	이지양 imjiyang@gmail.com 한진숙 imjinsuk@gmail.com 82-(0)935-235528
루마니아	김유정	쿠르테아 데 아르제슈 지역 집사들의 자활 사역	4-0754-911375,010-4593-9064 Jkyj77@gmail.com
통가	박종균 유미자	유치원개설, 장애우를 위한 복지시설 건축, 빛물탱크 만들기, 영농기술 보급	Pjgt2537@hanmail.net 00676-7746-777 070-400-77369
캄보디아	이형식 이은주	예배당 및 복지시설 건축 언어교육 및 제자양육학교 운영	josua.lee@gmail.com
태국	심재우 김신애	NIBCM 선교부 사역, 사역1팀 후 한국거주중	jaiwoo.shim@gmail.com 66-(0)83-013-7291, 070-8690-9774
바누아투	엘더 톰	삼마	678-541-7866 saamapresbyterianchurch @gmail.com lester@nbv.vu
터키	정빌립	문화적 접근을 위한 사단법인 운영 한국어 및 문화 강좌 개최 노방전도 및 피아노 교육	s-e-chung@hanmail.net

<앞에서 부터>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하며 선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속에서 자칫 이겨내지 못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대감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중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전의 위기를 통해 한단계 성숙되지 않았을까?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나님의 방법과 가르침도 모른다.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될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다는 것과 우리의 아기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위기가 찾아 오겠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자가 되기를... 강기동, 문지현부부